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는 정당한가?

### 서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이동권을 보장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부분 비장애인이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나 또한 찬성한다. 비장애인이 불편할 때 장애인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시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을 넘은 시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본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찬성하지만 선을 넘은 시위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up>1</sup>(전장연)를 예로 들어보자. 전장연은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동한다'<sup>2</sup>는 좋은 의미와 '차별에 저항하라'<sup>3</sup>라는 구호를 사용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운행 중인 교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출근시간대와 공항철도를 노리는 시위를 많이 하기에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시위를 한다. 물론 비장애인이 불편할 때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반대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운행방해 불법 시위<sup>4</sup>를 진행중이다.

지인과 전장연 시위에 대해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았을 때 찬성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하며 비장애인이 불편해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이해

---

<sup>1</sup>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11월 16일 수정, 2022년 11월 26일 접속,  
<https://namu.wiki/w/%EC%A0%84%EA%B5%AD%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C%B2%A0%ED%8F%90%EC%97%B0%EB%8C%80>

<sup>2</sup>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소개, 2022년 11월 26일 접속, <http://sadd.or.kr/introduce>

<sup>3</sup>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소개, 2022년 11월 26일 접속, <http://sadd.or.kr/introduce>

<sup>4</sup> 나무위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 방해 사태, 2022년 11월 26일 수정, 2022년 11월 26일 접속,  
<https://namu.wiki/w/%EC%A0%84%EA%B5%AD%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C%B2%A0%ED%8F%90%EC%97%B0%EB%8C%80%20%EC%A7%80%ED%95%98%EC%B2%A0%20%EC%9A%B4%ED%96%89%EB%B0%A9%ED%95%B4%20%EC%82%AC%ED%83%9C>

했으면 전장연 시위 또한 이해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시위 행위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와 공항철도에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 물론 한두번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전장연 검색<sup>5</sup>부터 한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위가 맞는 것인가?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해 서로 불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동권 보장을 위한다면 시위를 하되 서로 불편하지만 맞춰나갈 수 있는 수준의 시위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전장연의 시위는 차별에 저항한다는 구호를 사용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시위가 아닌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의 불편함을 느껴봐라라는 감정이 담긴 한을 품은 시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런 시위를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시위를 하며 바뀐 것이 있는가? 아마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 이게 정말 전장연의 시위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묻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지 이동권은 정말 중요한 권리이기에 보장 받기 위한 시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보장 받기 원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해 비장애인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 결론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불법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말로는 쉽지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전장연의 시위가 로고에 맞는 전장연 소개에 맞는 그런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sup>5</sup> 한경사회, "아침 눈 뜨면 전장연 검색부터"...'실검' 그리운 직장인들, 2022년 11월 25일 수정, 2022년 11월 26일 접속,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421007>